'여객선 운임 5천원 시대' 확 바뀐 섬 풍속도

"목욕하러 목포 갑니다"

뱃삯 싸져 '가까워진 육지'
계모임·쇼핑 등 잦은 발길
신안 인구 800여명 늘기도

신안 흑산도에 사는 조용호(58·흑산면 예리)씨는 지난달 초 목포시 하당동에서 열린 '신안무자회'(戊子會·신안군 쥐띠생들의 모임)에 참석했다. 평소 같으면 값비싼 여객선 운임(편도 2만2천원)때문에 갈 엄두도 내지 못했을 모임이었다. 하지만 3월부터 운임이 5천원으로 인하되면서, '부담없이' 띠 동갑들과 술잔을 기울일 수 있었다.

조씨는 "이전까지는 1년에 4차례 있는 모임 중 1~2번만 갔었다"면서 "뱃삯이 도시의 웬만한 택시비보다도 싸진 만큼 앞으로는 매회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와 해양수산부가 도서주민들의 뱃삯을 무조건 5천원 이하로 정하면서, 섬 주민들의 생활 풍속도가 변하고 있다. 주부들은 이제 목욕탕과 미장원을 가기 위해 육지로 향하고, 계모임도 시설이 좋은 도시에서 갖고 있다. 육지에 사는 친구들의 애경사도 거르지 않고 참석하는 등 '바다가 육지라면'의 노랫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신안문화원' 김강민(69·신안군 비금면) 원장은 종전엔 사무실이 있는 목포시 만호동에 한 달에 1~2회 갔었지만, 지난 4월엔 네 차례를 다녀왔다. 설과 추석에만 만나던 큰아들(광주 거주)도 두 번이나 만났다.

거문도에 사는 황말희(여·58·여수시 삼산면)씨는 운임 인하가 시작된 지난 3월 초 여수시 중앙동에서 평생 소원이던 가전제품 쇼핑을 했다. 황씨는 지금껏 인터넷이나 팸플릿을 보며 물건을 골랐지만, 이날은 2시간 동안 사고 싶은 김치냉장고를 '직접' 본 뒤 구입했다. 여수를 갔다오는데 4만7천원이 들었던 쾌속선 배값이 1만원으로 해결됐기 때문이다.

섬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교사, 우체국 직원들의 가족은 "더 이상 교통이 불편하지 않다"며 섬으로 이주하고 있다. 흑산도엔 하루 평균 1~2명이 전입을 하고 있다. 신안군의 경우 운임이 인하된 지난 두 달 동안 800여 명의 인구가 늘었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난해 신안 도서지방의 여객선 승객은 170만 명이었으나, 요금 인하 조치후 승객들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목포의 경우 마지막 배 출항시간을 2~3시간 연장해주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육지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와 해양수산부 등은 지난 3월부터 ▲목포~소흑산도(4만4천200원) ▲여수~거문도(2만3천450원) 등 도서 여객선 운임을 5천원으로 일괄 인하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kwangju.co.kr
/여수=강성훈기자 kangsw@kwangju.co.kr

지난달 30일 아시아문화전당 홍보관 옆 쌈지공원에서 열린 제 51회 호남예술제 청소년 그룹사운드 페스티벌에 참가한 고등학생 밴드가 관객들의 환호를 받으며 연주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제51회 호남예술제 개막

그룹사운드 페스티벌 숭신공고 'For-1' 1위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51회 호남예술제가 지난달 29일 아시아문화전당 옆 쌈지마당에서 열린 청소년 그룹사운드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다음달 중순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광주시민회관·호신대 음악관 등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무용·음악·국악·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 꿈나무들이 참여, 열띤 경연을 벌인다. 이번 대회에서는 신설된 논술을 비롯, 미술·작문 부문의 경우 최초로 예선제를 도입, 오는 25일까지 공모를 거쳐 6월 중순께 본선을 치를 예정이며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새싹 그리기 축제도 진행한다.

한편 지난달 29~30일 열린 그룹사운드 페스티벌에서는 숭신공고의 'For-1'이 1위를 차지했으며 목포 마리아회고의 'Root M', 대동고의 '노더락'이 2·3위를 차지했다. /김미은기자 mekim@

5·31지방선거 D-30

'넷심'을 잡아라
〈net 心〉

젊은층 인터넷 정보 파악
발빠른 후보들 적극 홍보

대학생 임모(24·광주시 두암동)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측이 나눠주는 명함이나 홍보전단은 아예 거절한다.

임씨는 대신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는다. 그가 즐겨 방문하는 사이트는 '선택 531'(www.choice531.co.kr). '로그인'을 한 뒤 '내 지역(예비)후보자 보기' 를 클릭, 광역단체장·광역의회의원·기초단체장·기초의회의원을 한 화면에서 본다. 예비 후보자의 이름·생년월일·거주지·키·몸무게·시력·혈액형·가족관계 등도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알 수 있다.

임씨가 눈여겨 살피는 것은 병역 사항이다. '(예비)후보자 비교분석!' 버튼을 누르면 후보자 간의 비교검색도 가능하다. '학력별·군출신별·연령별·거주지별·직업별·재산별' 등의 통계도 한꺼번에 나온다.

관심이 가는 후보자의 홈페이지를 찾기위해선 '의원나라'(www.의원나라.com)로 간다. 이곳에선 예비정치인의 홈페이지와 전체의원 개개인의 홈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후보자 정보를 얻는 젊은층이 늘어나면서 일부 예비 후보자들은 벌써 이들 사이트에 둥지를 틀고 '넷심(net 心)'잡기에 나서고 있다. 예비후보자 1천386명 중 광주 256명·전남 762명이 '선택 531'의 '사이버 선거벽보'에 사진과 개인 프로필 등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여행업계·직장인 "반갑다 5월"

연이은 황금연휴
각종 관광상품 동나

직장인들과 여행업계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신났다. 각종 행사와 연이은 황금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황금연휴 계속=이번주 5일 어린이날(금요일)부터 7일(일요일)까지 3일간의 달콤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또 8일(어버이날)을 '효도의 날'로 지정해 휴교를 하는 학교도 많다. 징검다리 연휴기간 사이인 2일부터 4일까지를 연차휴가로 활용할 경우 최장 9일간의 휴가를 뺄 수도 있다.

5월15일 스승의 날에는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휴교를 실시할 예정. 교직원의 경우 토요일인 13일부터 15일까지 또 쉬게 돼 한 달에 3번씩이나 연휴를 맞게 된다.

▲여행·숙박업계 특수=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5일 광주발 제주행 항공권이 이미 동이났고, 대기자도 수십여명에 이르고 있다. 8일 제주에서 광주로 들어오는 여객기도 만석(滿席)이다.

5일과 15일 광주공항에서 출발하는 북경행 여행상품 예약도 평균 50% 이상 증가했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경우 다음달 4일 출발하는 동남아 노선 예약률이 90%를 넘어섰다. 전년 같은 기간 탑승률은 일본 54%, 중국 66%, 동남아 73%선에 머물렀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비용이 적게드는 여행지를 문의하는 전화가 크게 늘었다"며 "이 기간에 맞춘 별도의 패키지 상품을 준비해 적극 홍보 중"이라고 말했다.

금호와 한화 등 국내 유명 콘도도 5월 한달의 주말 예약은 이미 끝난 상태다. 금호리조트의 경우 충무와 제주 콘도 예약은 5월 주말 예약은 이미 마감이 됐으며, 화순과 설악콘도는 일부 평수에 한해 1~2객실이 남았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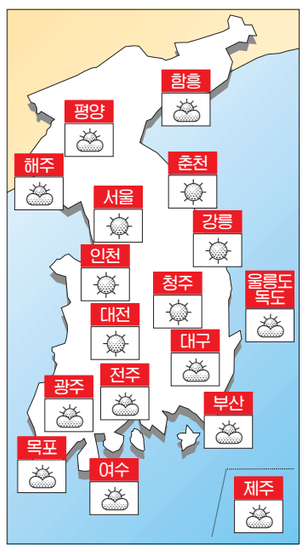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마스크 쓰세요

약한 황사 현상이 있겠고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5월 1일 (음 4월 4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 많음, 약한 황사	14~25℃
목 포	구름 많음, 약한 황사	14~21℃
여 수	구름 많음, 약한 황사	14~20℃
완 도	구름 많음, 약한 황사	13~21℃
구 례	구름 많음, 약한 황사	13~25℃
해 남	구름 많음, 약한 황사	512~22℃
장 흥	구름 많음, 약한 황사	12~24℃
고 흥	구름 많음, 약한 황사	12~23℃
순 천	구름 많음, 약한 황사	11~26℃
영 광	구름 많음, 약한 황사	13~21℃
진 도	구름 많음, 약한 황사	14~22℃
전 주	구름 많음, 약한 황사	13~25℃
남 원	구름 많음, 약한 황사	10~26℃
정 읍	구름 많음, 약한 황사	12~25℃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04:43 16:18 썰물〈 09:39 21:33
여 수 밀물〈 10:57 23:44 썰물〈 05:06 17:02

▲해뜸 05:42 ▲해짐 19:18 ▲달뜸 07:49 ▲달짐 23:2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화)	3(수)	4(목)	5(금)	6(토)	7(일)
날 씨						
최저/최고	12/25	10/23	13/26	14/24	15/18	14/23

광주·전남 오늘 또 황사

농도는 다소 약할 듯

'근로자의 날'인 1일, 광주·전남에 다시 한번 황사가 찾아올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9일 네이멍구(內蒙古) 지방에서 발생한 모래 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황사의 농도는 미세먼지 200~300㎍/㎥의 약한 황사로, 주의보(500㎍/㎥) 수준은 아닐 전망"이라고 예보했다.

이번 황사는 올들어 14번째 황사로 2일께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섭씨 27.5도로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했고 ▲순천 28도 ▲나주 27.3도 ▲구례 29.4도 등 도내 전역이 30도에 육박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지리산 주 등산로 오늘부터 열린다

지리산 주 등산로가 1일부터 열린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사무소는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3~4월 두달간 통제해 왔던 중산리~천왕봉~노고단 등 종주능선을 포함한 16개 탐방로에 대해 1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지리산사무소는 탐방로는 개방하지만 산불 취약지역과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한 출입통제지역, 자연휴식년제 구간, 비탐방로 및 샛길에 대해서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키로 했다.

지리산은 봄철(3월~4월 말)과 가을철(11월15일~12월15일) 두 차례에 걸쳐 2개월씩 산불예방과 동식물 보호를 위해 등산객들의 탐방로 출입을 통제해 오고 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반론 보도문=본보는 지난 4월 17일자 7면 "유명병원들, 단체검진 뒷거래"제하의 기사에서 시엘병원이 불법알선업체로부터 건강검진을 위탁받아 그 대가로 1천700만원을 제공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시엘병원은 이에 대해 건강검진을 대행해주는 업체로부터 일부 건강검진 대상자들에 대한 검진을 위탁받아 시행한 적은 있으나, 대가로 금전 등을 지급한 적은 전혀 없으며 부실한 건강검진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